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울림 2024 Vol.30

세우는 소리

학장님 말씀	4
“세계적 리더로서의 서울대 음대가 되기 위하여” 최은식 학장	
수상자 인터뷰	
아슬리코 국제 오페라 콩쿠르 & 제18회 서울 국제 콩쿠르	7
성악가 강정훈	
2023 GFA 국제 청소년 기타 콩쿠르	8
기타리스트 차환희	
2023 대한민국 작곡상	10
국악 작곡, 철현금 연주자 최민준	

아름다운 소리

동아리 소개	
‘스누뮤(SNUMUSIC)’, 음악인으로서의	14
다양한 경험을 이끈다.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 펼쳐진	16
기교 높은 아리아와 오리엔탈리즘의 합작	
제33회 정기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어우러지는 소리

화요음악회 리뷰	26
한 달에 한 번, 서울대학교에서 만나보는 형형색색 음악들의 향연	



세우는 소리

학장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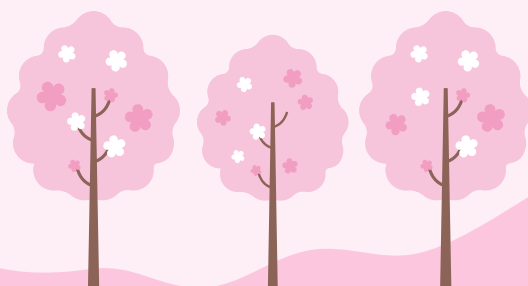
“세계적 리더로서의 서울대 음대가 되기 위하여”
최은식 학장

수상자 인터뷰

아슬리코 국제 오페라 콩쿠르 & 제18회 서울 국제 콩쿠르
성악가 강정훈

2023 GFA 국제 청소년 기타 콩쿠르
기타리스트 차환희

2023 대한민국 작곡상
국악 작곡, 철현금 연주자 최민준



학장님 말씀



최은식 학장은 서울예고 재학중 LA필하모닉 수석 비올리스트 오야마 헤이치로에게 발탁돼 미국으로 건너가 커티스 음악원과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공부했다. 보로메오 현악4중주단 창단 멤버로 뉴욕 영콘서트 아티스트 오디션을 우승했고, 프랑스 예비앙 국제 콩쿠르도 2위로 입상하였다. 에머넛 현악 4중주단 멤버로서 1997~2001년 한국을 빛낸 7인의 음악가에 선정되었고, 현재 비바체 페스티벌과 전주 실내악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뉴잉글랜드 음악원과 신시내티 음악원 교수 역임 후 현재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와 학장으로 재직중이다. 늘 겸손하고 발전에 대해 생각하며, 후학양성에 어떻게 힘을 써야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최은식 학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학부시절로부터 교수로서의 시간까지 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대학 졸업 후 커티스 음악원에서 만난 스승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 4년 동안 스승님께 음악에 대한 깊이와 테크닉을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스승님의 비올라를 대하는 태도와 책임감에 감명 받아 현재 학생들을 가르칠 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한 유학생활을 마칠 수 있었고, 특히 커티스 음악원 한국인 최초 비올라 전공생으로 들어갔기에 더욱 각별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내악 지도 교수님들과의 수업이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현악사중주팀을 꾸려 활동하는 것이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세계적 리더로서의 서울대 음대가 되기 위하여

최은식 학장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음악대학 학생들을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중에 '해야 할 일'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합니다. 추상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것' 들을 먼저 해내야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최선을 다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또 제가 제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늘 겸손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 훌륭한 재능으로 입학 할 수 있었던 만큼 그 재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윈스턴 처칠도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연설에서 말했죠. 꿈이 있다면 인생을 살아갈 때 슬럼프와 방향, 좌절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하나의 배우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며, 성공을 좇기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다보면 분명 기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로에 있어서 너무나도 다양한 기회가 여러 방향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본인이 원하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디션과 콩쿠르에서 실패를 경험한 뒤 상담을 오곤 합니다. 그 친구들에겐 젊음이 있으니 코앞에 펼쳐진 현상만 보기보다는 멀리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분명 여러분의 실력과 음악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 스승님 또한 저를 그렇게 가르쳐주셨고, 남들과 경쟁해서 1등하고 성과물에 집착하기 보다는 많은 경험을 하고 여러 상황에 부딪혀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대학 리모델링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53동과 49동 콘서트홀 로비의 리모델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54동과 55동 차례인데, 설계는 모두 끝나고 11월부터 착공하여 24개월에 걸쳐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더욱 생활하는 공간이 좁아질 텐데, 음악대학이 더 좋은 환경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불편을 겪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잘 협조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음악대학 건물이 70년대에 지어졌는데, 그동안 리모델링을 한 번도 하지 못했고 노후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거라고 봅니다. 제가 본 외국 음대들의 환경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54동과 55동 리모델링을 최대한 편리하고 활용성이 좋은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드라마틱하게 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우선 연습실 개수를 증축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55동 시청각실을 리사이틀 홀 겸 연주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중입니다. 또한 성악양상블실 및 실내악실(예명)도 만들 예정이고, 문화관에 있는 타악기실과 오페라실도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완공되고 나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대와 공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가 잘 기다리고 협조해주어 멋진 음악대학이 되도록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음악대학 학장님으로서 사명이나 목표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하며 굉장히 운이 좋은 순간들이 많았고, 저에게 맞는 전공 선택을 한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음악의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고 살아나가며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데 아직도 배울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대학교도 다른 대학과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며 서로 좋은 영향을 받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드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요즘에도 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우리 학생들이 입상중인데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진실된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대 음대를 나온 우리 학생들이 리더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

는 것이 저의 꿈이고, 선생으로서 또 학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비올라 연주자로서나 다른 일로 계획한 것도 많지만 저는 교수로서 학교 내에서 훌륭한 동료들과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값지고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보람이자 ‘선물’ 인지 모르겠어요.

한 시간 좀 넘는 시간동안 그를 인터뷰하고서 느낀 점은 음악을 대하는 애정도나 태도가 남달랐다는 것이다. 특히 현악 4중주를 와인에 비유한 말에서 비올라에 대한 그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멜로디를 연주하는 제1 바이올린은 와인의 라벨, 첼로는 와인 전체를 감싸주는 병, 제2 바이올린은 와인병이 숨쉬게 해주는 코르크 마개, 그리고 비올라는 그 속에 담긴 와인이다.” 현악 4중주에서 그만큼 비올라의 비중이 높다는 의미이다. 비올라는 다른 악기를 지지해주는 악기로서 리듬감이 좋아야하고 음악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최은식 학장은 최근 한 외국 손님과 만나 음악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태어나서 악기를 하더라도 다시 비올라를 선택할 것 같다”고 하였다. 끊임없이 개발하고 더욱 더 친척적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학장으로서 많은 음악대학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의 꿈을 향해 달려나감과 동시에 학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탐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감명깊었다.

글_홍다빈 (성악과 21)



수상자 인터뷰

우리는 종종 클래식 연주회를 보면서 소름이 돋거나, 감정에 젖어 숨을 쉬지 않았던 경험을 하곤 한다. 이렇듯 클래식의 매력을 명확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어렵지만,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먼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존재하며 우리와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해온 살아있는 음악이기도 하다. 현재의 클래식이 음악 시장에서의 주류라고 말하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빠지면 절대로 헤어 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졌다는 점 또한 지금까지도 클래식이 ‘클래식’으로 이어져 온 이유라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날 클래식계의 발전에는 여러 걸림돌이 존재하기도 한다. 클래식 연주자로서 살아가는 일은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나 프리랜서 음악가는 일자의 불안정성을 항상 걱정해야 하고, 클래식의 적은 수요 역시 고민거리이다. 실제로도 해마다 클래식 전공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탓에 클래식 전공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이 있다. 최근 들어 국제무대에서 큰 성과를 거뒀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들의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 비서구권의 나라에서 자라나고 공부한 학생 음악가가 클래식의 본고장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이들은 음악을 통해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오늘 75년의 역사를 지닌 이탈리아 아슬리코 국제 오페라 콩쿠르(AsLiCo Concorso)에서 아시아 본선 최초 우승자이자, 제18회 서울 국제 콩쿠르에서 4위를 수상한 베이스 강정훈(성악과18)과 2023 GFA 국제 청소년 기타 콩쿠르(Guitar Foundation of America International Youth Competition)에서 2위를 수상한 차환희(클래식 기타 23) 학생을 만나보았다.



아슬리코 국제 오페라 콩쿠르 & 제18회 서울 국제 콩쿠르

성악가_강정훈

아슬리코 국제 오페라 콩쿠르와 서울 국제 콩쿠르를 출전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슬리코 국제 오페라 콩쿠르는 원래 유럽지역에서만 개최되던 콩쿠르입니다. 올해 최초로 아시아에서도 개최가 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마침 저의 사사인 사무엘 윤 교수님께서도 권유해주셔서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국제 콩쿠르는 매년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총 3개의 부문을 번갈아 가며 개최되는데, 고등학생 시절부터 영상을 챙겨볼 정도로 꼭 나가고 싶은 콩쿠르였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무대에 오르기 직전, 가장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내가 무대에서 제일 최고라는 생각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연주 중에는 발성이나 음악성 등은 최대한 생각하지 않고 무대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부분들은 개인 연습을 통해서 몸에 익혀질 때까지 연습하고, 무대에서는 몸이 기억하는 대로 무대를 즐겨야 그동안 연습했던 결과가 온전히 저의 무대 위에서 최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본인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아슬리코 국제 콩쿠르에서 아시아 대표로 선정되어 이탈리아로 넘어가 유럽 대표들과의 콩쿠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독일에서의 유학 생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클래식을 전공하는 후배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을 향한 애정인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도 대학교 입학과 졸업 전후로 많은 친구들이 진로를 바꾸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특히나 대학 졸업 후에는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사회인으로서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이 전공에 대한 애정만 있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악가 강정훈으로서 최종 목표가 있나요?

저는 객석에 앉아 연주회를 보면서 크게 감동합니다. 그래서 저의 무대를 감상해 주시는 관객분들께 제가 느낀 것 이상을 전해줄 수 있는 성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베이스 성악가가 누구냐고 하었을 때 강정훈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3 GFA 국제 청소년 기타 콩쿠르

~~~~~  
기타리스트\_차환희

## 2023 GFA 국제 청소년 기타 콩쿠르 (Guitar Foundation of America International Youth Competition)에서 2위를 수상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권위 있는 기타 콩쿠르에서 2위 수상은 정말 감격스럽고 꿈만 같았습니다. 특히나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 학업을 병행해야 했기에 연습이 부족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본선 당일 무대 뒤에서 다른 참가자들의 뛰어난 실력과 음악성에 순간 충격을 받고 긴장감이 확 몰려왔지만, 최대한 정신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상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면서도 무대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 더욱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 클래식 기타를 전공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조금 특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클래식 기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군대에 가신 사이에 클래식 기타를 전공하셨던 친구분께 첫사랑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슬펐지만, 클래식 기타를 치는 그 친구의 모습은 남자인 아버지가 봐도 너무 멋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저에게 우스갯소리로 한을 풀어 달라고 권유하신 게 제가 클래식 기타를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 서울대학교를 조기입학 하셨는데, 학창 시절(중, 고등학교)과 대학입시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서울예고에 입학 후 기타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고민 끝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존경하는 스승님이신 박규희 선생님을 학교라고 생각하고 배우며 기타에 매진했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자유로운 생활에서 규율과 울타리가 없어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계획표를 만들어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서울대 입시를 준비해 보자고 하였고 만날 때마다 항상 “너는 제일 어리지만 제일 잘 할 거야”라며 힘을 주셨습니다. 결국 제 첫 대학입시에서 서울대 합격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 본인이 클래식 기타를 연습하거나 연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레가토와 악상 표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클래식 기타는 악기 특성상 레가토를 하기가 어려운 악기이기 때문에 끊어지게 연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레가토를 위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악보를 처음 볼 때 보통은 손이 편한 운지를 택하지만, 저는 조금 어려워도 레가토가 잘 되는 운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악상 표현은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음악이야말로 청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부분입니다. 사실 신경 쓰면서 연주를 하다보면 기타 연주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실수도 잦아지지만 아름다운 음악을 위해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클래식 기타가 가진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클래식 기타에 빠져들게 하는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클래식 기타의 매력은 단연 음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끝으로 터치해서 소리를 내는 만큼 섬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하여 아주 다양한 음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몽글몽글한 느낌과 따뜻하고 편안하면서도 아련한 음색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는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너무 많은데 그중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몇 곡을 뽑자면, 슬픈 멜로디가 가슴을 저미게 하는 〈F. Tarrega - Lagrima〉, 재밌는 리듬이 장난꾸러기 같은 곡 〈Roland Dyens - Tango en skai〉, 아름답고 서정적인 선율과 웅장함, 빠른 테크닉까지 모두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A. B. Mangore - La Catedral〉 등이 있습니다.

글\_권상국 (성악과 21)



## 2023 제42회 대한민국 작곡상 (신인부)

국악 작곡가, 철현금 연주자 최민준

2023년 제42회 대한민국 작곡상 신인상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크게 주목받은 음악가 최민준은 2020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국악과 작곡 전공으로 입학하여 작곡과 작곡 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다. 또한 금속국악양상블(METALISM), 작곡 단체 이음(I:EUM), Team GATA= 등에 속해 작곡가와 더불어 철현금 연주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음악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함으로써 그가 보여줄 앞으로의 작품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음악가 최민준을 만나보았다.

### 1.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대한민국 작곡상은 우리나라에서 작곡가로서 활동하며 받을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중 신인상을 받았는데요, 언제나 가슴 한편으로 받기를 바랐던 상을, 학부 졸업을 앞둔 이 시기에 받을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받을 것이라 예상치 못했던 상이라 더욱 놀랐고, 한편으로 당황스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일회적인 수상이 아닌 다년간의 노력에 대한 인정이자 격려라고 생각되어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수상이 아닌, 좋은 음악의 창작을 목표로 두는 태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 2. 주전공에 이어서 작곡과에서도 복수전공으로 공부하고 계신데,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중학교 때 가야금으로 국악에 입문하여, 고등학교 이후로 국악 작곡을 배우고 있는데요.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제 음악적 지평을 넓히고자 복수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도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상상하는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즉 개인의 예술관을 확립하려면 다양한 음악을 두루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제 지도교수님이신 Sebastian Claren 교수님께서서는 독일인이시지만 한국에서 국악기를 위한 작품을 주로 작곡하셔서, 교수님께 공부하는 모든 과정은 여러모로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시간입니다.



### 3. 작곡가와 더불어 철현금 연주자로도 활동하시는데, 철현금이라는 악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훌륭한 작곡가나 지휘자들이 모두 하나 이상의 악기를 전문적인 수준으로 연주한다는 말은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 피아노가 그 대상이고 바이올린이나 첼로 등의 현악기들도 작곡가들이 흔히 다루는 악기인 것 같습니다. 국악기를 주로 작곡하는 저로서는 국악기 하나를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철현금이라는 악기가 가진 독특한 포지션 - 근대에 발명된 국악기이자 동서양적 요소가 고루 혼합되고 국악의 주요한 특징인 ‘음의 유동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 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중학교 때는 가야금을, 고등학교 때는 거문고를 연주했었기에 다소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국악이 특히나 ‘연주자 중심’의 창작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연주자로서 활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 작품에 대한 설득력(일차적으로는 연주자에게, 이차적으로 관객들에게)을 보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악 작곡’을 전공하는 모든 작곡가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4. 최민준 학생이 생각하는 “좋은 작품”은 무엇인가요?

다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존중되며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기술들이 선보여지는 지금 이 시대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문장만큼 (특히)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경합한 노장의 영화감독 마틴 스코세이지의 말을 인용했다고 덧붙여진 봉준호 감독의 이 명언은 성공을 위해 시류에 몸을 맡기는 저와 같은 창작자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음악가들은 언제나 창의성을 요구받는데, 그 방법으로 외부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닌, 거꾸로 자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저는 끊임없이 ‘정체성’이라는 늪에서 어떻게든 빠져

나오기 위해 허우적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밖으로 어떻게 내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고민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국악과 작곡 전공 졸업연주회를 준비하며 높이라고 생각되던 것 안에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기로 선택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졸업연주회 ‘Toward Sinawi - 시나위 향해서’에서 발표된 동명의 작품은 제 지난 작품 20여 편과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주로 전통음악) 40여 편의 직간접적 인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욕심이 과해, 기법적인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국악에 입문한 이후 11년간의 저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낸 작품이기에 어쩌면 이 작품이 현재로서는 ‘가장 개인적’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곡가가 작곡가의 위상과 무관하게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제가 ‘작곡가’ 최민준이 아닌 ‘인간’ 최민준일 수 있는 작품을 쓴다면, 그게 가장 좋은 작품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작품들을 쓸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_양희윤 (국악과 20)



(출처: 미디어파인, 철현금의 비상 ‘Another Dream’, 김영훈)

철현금 : 철현금(鐵弦琴)은 1940년대에 줄타기·명인 김영철에 의해 개발된 현악기로, 기타에 거문고의 주법을 적용한 것이 그 시초였다. 8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타의 금속 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철현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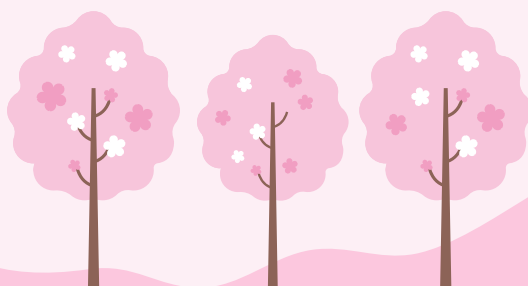
## 아름다운 소리

### 동아리 소개

‘스누뮤(SNUMUSIC)’, 음악인으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이끈다.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 펼쳐진  
기교 높은 아리아와 오리엔탈리즘의 합작

제33회 정기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 ‘스누뮤’(SNUMUSIC)’, 음악인으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이끈다.



치열한 입시를 마무리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후, 많은 학생들이 해보고 싶어 하는 것 중 하나로 동아리 활동을 꼽을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의 전공뿐만이 아닌 그와 관련한 다른 다양한 분야에 흥미를 느끼게 될 수도 있고, 이의 연장선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동아리 중, 음악대학을 대표하는 ‘스누뮤(SNUMU)’를 소개하기 위해 스누뮤 부원인 김예진(작곡과 작곡 전공 21)과 허 솔(기악과 피아노 전공 22)을 인터뷰해보았다.

## 1. ‘스누뮤’는 어떤 동아리이고,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일을 주로 하나요?

김예진: ‘스누뮤’는 ‘SNU + MUSIC’의 합성어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유일무이’한 미디어 콘텐츠 동아리입니다. 음악대학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에 참여하여 영상 제작 및 녹음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끼리 자체 콘텐츠를 만들어서 22년도에는 이무진 씨와 협업했고, 23년도에는 tvN 예능 사이아트코리아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 2. ‘스누뮤’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허 솔: 신청했을 당시 영상 편집에 관심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동아리를 찾아보던 중 음대 내에 ‘스누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했습니다. 단과대학 내의 동아리인 만큼, 음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 3. ‘스누뮤’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김예진:** 스누뮤만의 장점이라 하면 본인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속으로만 생각해오던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획 단계에서 뱉으면, 부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덧붙여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게다가 장비를 다룰 수 있는 부원들도 꽤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다른 장점 중 하나 같아요. 나중에 영상이나 음향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기도 한답니다. (웃음)

### 4. ‘스누뮤’를 운영하며 힘들었던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나요?

**허 솔:** 가끔 개인이 생각했고 만들고 싶은 영상의 스케일이 너무 크거나, 각각 하고 싶은 게 다를 경우 생각을 조율하고 정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모두가 모여 회의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 대체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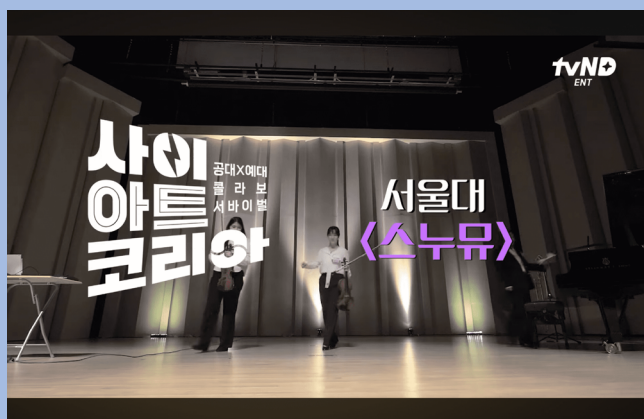
### 5. ‘스누뮤’를 알리는 한마디를 해주세요.

**김예진:** 아이디어가 넘치는 친구들,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은 친구들, 초보자이지만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 모두 스누뮤 안에서 즐겁게 영상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악대학의 유일한 미디어 동아리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것 같아요. 이번 신입 부원 모집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허 솔:** 영상에 관심이 있다면 스누뮤는 어떠세요? 촬영, 편집, 음향 다 할 줄 몰라도 다 함께 배울 수 있고, 실전 연습도 할 수 있어요!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스누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참여해보길 바란다.

글쓴이\_이고은(성악과 22)





#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 펼쳐진 기교 높은 아리아와 오리엔탈리즘의 합작

제33회 정기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제33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정기 오페라

모차르트  
**‘후궁으로  
부터의 도주’**  
*W. A. Mozart*  
*‘Die Entführung aus dem Serail’*

예술 총감독 서혜연  
지휘 장운성  
연출 이혜영  
음악감독 박원후  
합창지휘 백주원  
음악코치 강지현, Fabio Maggio, 박화경  
오케스트라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출연 SNU 성악과  
합창 SNU 성악과 합창단

**2023. 11. 2<sup>THU</sup>~4<sup>SAT</sup> 7:30PM**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주최 SNU MUSIC 후원 서울대학교 발전재단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티켓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티켓구매 및 문의 02-880-7938, 010-4512-4686  
\* 11월 3일(금) 공연은 서울대학교 발전재단 기부자 초청공연입니다.



## 모차르트가 남긴 당대 가장 익살스러운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Die Entführung aus dem Serail>

〈후궁으로부터의 도주〉는 ‘징슈필’이라고 불리는 독일 오페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이탈리아 오페라와 달리 대사와 아리아를 분리하여 상대적인 극적 긴장감과 속도감을 야기한다. 터키를 배경으로 하는 3막 구성의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는 모차르트가 18세기 후반 오스만제국의 세력이 확장함에 따라 유럽에 성행한 오리엔탈 문화를 극 안으로 가져온 시대 반영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당시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행했던 ‘터키풀 음악’을 표현하고자 큰 북, 트라이앵글, 심벌즈, 피콜로 등의 악기들을 오케스트라 구성에 추가하였다. 오페라 무대에서 펼쳐지는 오리엔탈리즘은 관객들로 하여 신선함을 맛볼 수 있게 하였고, 특색 있는 배경뿐만이 아니라 주인공들 사이에 나타나는 자비와 증오, 용기와 절망, 믿음과 불신 등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들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2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후궁으로부터의 도주〉에서 주목해볼 또 다른 점은 바로 ‘인물들의 이중성’이다. 여주인공 ‘콘스탄체’의 경우 용맹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녀를 구출하는 ‘벨몬테’ 역시 정의롭고 용감한 인물로 묘사되지만, 테너라는 음역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단조롭고 절제된 선율 선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아 소심하고 섬세한 면이 있는 인물임을 발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포악한 인물의 상징인 문지기 ‘오스민’도 자신이 좋아하는 ‘블론데’ 앞에서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이중성을 극대화한다.

가장 모차르트다운 오페라라고 불리는 후궁으로부터의 도주는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색채를 보여주며 지금까지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준 높은 아리아와 징슈필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접하기 어렵다. 그러한 면에서 올해 서울대학교 정기 오페라에서 연주된 〈후궁으로부터의 도주〉는 더욱 의미 있는 도전이다.

### | 캐릭터별 아리아 설명:

\*콘스탄체 아리아 : 콜로라투라적<sup>(1)</sup> 고음을 요구하는 ‘고음의 아리아’로 그녀는 해적에게 잡혀 젤림에게 팔려왔지만, 약혼자 벨몬테와 사랑을 약속했기에 젤림을 거절하며 자신의 지조를 지키는 내용의 아리아이다.

\*블론데 아리아 : Durch Zärtlichkeit und Schmeicheln - 2막에 나오는 〈처녀의 마음을 붙잡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스민의 여자 노예가 되어버린 블론데는 자신에게 사랑을 호소하는 오스민에게 터키의 여자 노예라면 몰라도 유럽 처녀에게는 그러한 위협이 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래를 부른다.

\*벨몬테 아리아 : Constanze, dich wiederzusehen, dich!. O wie ängstlich o wie feurig - 납치된 약혼자 콘스탄체를 구하기 위해 바다 건너 터키에 도착한 벨몬테는, 오스민의 궁전에 들어가기 전 그녀를 향한 그리움과 함께 그녀를 되찾겠다는 굳은 의지를 노래한다.

\*오스민 아리아 : O, wie will ich triumphieren - 콘스탄체와 벨몬테 그리고 블론데 페드릴로는 오스민을 술에 취하게 하여 탈출을 계획하지만, 오스민이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이 사실이 모두 발각된다. 탈출에 실패한 네 사람은 경비원들에게 잡혀가고, 그는 탈출자 4명을 잡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 이 아리아를 부른다.

(1) 빠른 템포로 통상 자잘한 음표로 이루어졌으며, 꾸밈음이나 스타일 넘치는 화려한 악구가 소위 기악적으로 펼쳐지는 듯한 선율 양식이다.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가운데 〈밤의 여왕의 아리아〉는 콜로라투라의 전형적인 예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콜로라투라 [coloratura]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줄거리

터키 고관의 후궁에 팔려온 연인 콘스탄체를 탈출시키려는 스페인 귀족 벨몬테의 이야기이다. 벨몬테는 하인 페드릴로와 함께 탈출 계획을 세우고, 콘스탄체의 시녀 블론데를 통해 이 계획을 공유한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지방관 젤림의 부하인 오스민에게 사형선고를 받는 위험에 처한다. 콘스탄체마저 죽게되는 운명을 한탄하는 벨몬테에게 그녀는 함께 죽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위로하게 되는데, 이것을 들은 젤림이 그들의 진정한 사랑에 감동하여 네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

〈후궁으로부터의 도주〉는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징슈필로 꼽히지만, 소재 면에서 비독일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탈리아 오페라 소재에 언어만 독일어를 입힌 셈이다. 당시 독일어권에서 한창 인기를 끌던 소재인 ‘터키 이야기’ 중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브레츠너가 쓴 〈벨몬테와 콘스탄체〉라는 작품이 있었고, 모차르트 이전에도 이 원작을 토대로 이미 연극과 오페라들이 만들어졌다. 대본가 고틀리프 슈테파니는 이 원작을 토대로 대본을 써서 모차르트에게 주었고, 대본을 받자마자 모차르트는 각 배역에 어울릴 가수들을 머릿속으로 다 정해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태수 젤림 역을 맡기려 했던 이그나츠 발터라는 가수가 황제에게 해고되는 바람에 적당한 성악가를 구하지 못해 모차르트는 이 배역의 노래를 삭제할 수 밖에 없었다. 모차르트의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1782년 빈의 부르크테아터에서 초연되었으며, 1779년에 작곡한 자신의 미완성 오페라 〈차이데〉를 기본 재료로 삼아 작곡했다. 당대 작곡가들이 흔히 그랬듯이 모차르트는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였던 카탈리나 카발리에리(Caterina Cavalieri)의 음역과 테크닉 및 가창 스타일에 맞춰 콘스탄체의 아리아를 작곡했다.



# 인터뷰

## 1. 오페라를 경험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김수진:** 오페라는 실제적인 지혜를 체득하는 장이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지식의 획득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론적 지식이라는 뼈대에 경험적 지혜라는 살을 채우는 느낌이었달까요. 예컨대 공연장에서 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연기자는 최대한 정면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약간의 시선의 변화도 소리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극의 진행상 뒤편에서 등장하는 상대를 바라보거나 동선 이동을 위해 옆 방향으로 이동하기도 하죠. 이때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소리 전달에 최대한 지장을 덜 주는지, 그 외에도 무대에서 나의 연기를 보다 극적으로 관중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 말로 무어라 설명하기에는 너무 사소하고 세세하여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How to'를 배웠습니다.

**류혜령:** 오페라 한 작품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출연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연출가와 무대감독, 스태프, 그리고 합창 단원들 등 여러 사람의 손길이 더해져 좋은 무대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나운:** 처음으로 한 작품에 깊게 파고들어 공부할 수 있었고, 순수하게 '무대를 즐기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항상 목표를 위해 노래를 오기로 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었지만 즐기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니 자연스레 열심히 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고, 지치지 않는 동력이 됐습니다. 첫 데뷔 무대인 만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도록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에 모든 캐스트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공연을 올리기가까지의 고된 시간을 이겨내고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은 뒤,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마침내 '아, 내가 무대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희열과 감동을 그렇게 원색적으로 순수하게 느낀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노래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음악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걸 느낍니다.

**김동렬:** 처음 주역으로 데뷔한 오페라였는데, 머릿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남는 것은 오페라의 준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이든(무대 스태프, 무대감독, 코칭, 지휘자, 오케스트라, 합창, 오페라 캐릭터들) 절대 빼놓을 수 없고 모두가 똑같이 중요하고 소중한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점입니다.

**노광근:** 배역에 얼마나 빠져드느냐에 따라 관객들이 오페라에 몰입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 2. 오페라 자신의 배역과 가치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본인 역할의 MBTI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해주세요!

**류혜령:** 저는 스페인의 귀부인인 콘스탄체를 맡았는데, 스페인 귀족인 벨몬테를 확실하게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납치한 터키의 파샤 젤림에게 확실하게 싫다고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못 끊는 콘스탄체를 보면 갈등이 없는 것을 좋아하고 흔히 평화주의자라고 불리는 ENFJ 같다고 생각합니다.

**구나운:** 영국 출신의 시녀인 블론데는 영국 여성이라는 고고한 아이덴티티와 귀족 아가씨를 모시는 시녀답게 상류층의 문화와 예절 역시 겸비한 요조숙녀입니다. 튀르키예에 잡혀 와서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지만, 그 속에서도 천진함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성안에 갇혀 침울해하는 콘스탄체와 달리 눈앞에 있는 꽃들과 새의 지저귀음을 노래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장면이 블론데의 발랄함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그녀의 모습에 재기발랄한 활동가 ENFP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저 또한 같은 MBTI를 갖고 있었기에 제 모습을 그대로 녹여내기도 하며 블론데에 대한 캐릭터를 더욱 구체화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렬:** 오페라에서 저는 벨몬테라는 배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벨몬테는 작중에서 스페인 귀족 집안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본국에서는 꽤 권력이 있을지 몰라도 홀로 외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연인을 구하기 위해 하인의 편지 한 장에 의지한 채 홀로 배를 타고 처음 가보는 터키라는 나라로 넘어가서 그 역경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벨몬테는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조차 불사르는 사랑꾼에다가 엄청난 용기를 지닌 캐릭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광근:** 제가 맡았던 오스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루어야 하고 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아마 MBTI를 검사했다면 ESTJ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수진:** 제가 연기한 블론데는 귀족 규수인 콘스탄체의 하인입니다. 매사 활발하고 덩벼거리지만, 재기발랄한 면모로 하렘에 갇혀 슬픔에 빠진 콘스탄체를 위로하고 보필합니다.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발랄한 소녀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본인도 콘스탄체와 동일한 처지일 뿐 아니라 심지어 성주 젤림의 신하인 오스민의 노리갯감이 되었음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는 당찬 모습은 블론테를 마냥 철없고 어리숙한 낙천주의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본인이 영국인이라는 것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으며, 호불호도 매우 확실히 표현하죠. 특히나 배역을 분석하면서 블론테가 콘스탄체를 위로하는 대사들이 젤림이 콘스탄체를 위로하는 대사와 일부 겹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Immer noch so traulich(아직도 그렇게 고통스러우신가요)?'라는 대사가 겹치는 부분이나 콘스탄체를 달랠 때 성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는 로맨티시즘적인 모습 말입니다. 즉, 블론테가 취하는 대화의 기술, 말하는 방식이 상류층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옛날 우리나라도 어린 각시들이 입궁하며 궁중 예절을 배우듯 어렸을 때부터 콘스탄체와 함께한 블론테 역시 상류층의 문화를 잘 알고 있음을 짐작할 수도 있었고 블론테라는 친구 자체가 매우 영민하다고도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며 '하녀 신분이지만 천박하지 않고, 어리고 작은 여성이

지만 만만하지 않으며, 여우같이 영특하고 한편으로는 장부 같은' 캐릭터로 블론테를 그려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글로 표현하니 블론테가 얼마나 다채롭고 매력적인 캐릭터인지 다시금 느껴지는데, 이러한 블론테의 MBTI를 감히 추측해보자면 ENFP의 스펙트럼을 가지는 ENTP라고 생각됩니다.

### 3. 혼자 하는 무대와 모두가 어우러지는 오페라 무대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느끼셨다면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적어주세요!

**류혜령:** 혼자 하는 무대는 연습을 어느 시간에도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준비하는 오페라는 시간에 맞춰서 연습하기 때문에 시간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연습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에 신체적인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동렬:** 일단 혼자 하는 무대와 모두가 함께하는 무대는 발산되는 에너지 자체가 다릅니다. 오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인 지휘자님조차 모두가 함께하는 순간에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몰입감과 남다른 집중력을 보여주십니다. 모두가 함께 음악을 만들어갈 때는 지휘자의 지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완성도 높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가수들 각자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각자의 소리를 하나로 조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노력합니다.

**구본엽:** 제가 혼자 서는 무대에선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면이 필요하다면, 모두가 어우러지는 무대인 오페라에선 유동성 있게 상대방에 맞춰주는 호흡이 중요하다는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 배역한테 의지하는 부분도 많았고 서로 배려하면 할수록 무대가 더욱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함께'가 주는 시너지는 가히 놀랍습니다. 사실 어떠한 무대이든, 심지어 홀로 꾸리는 버스킹도 관객이라는 대상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듯이 '무대'라는 현상은 '타인'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무대공간 안에서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기가 존재



한다는 것은 같이 연기를 하는 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지 만, 관객이 느끼는 압도감의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페라를 경험하며 종합예술이 지니는 압도적인 퍼포먼스의 차이를 크게 실감했고, 이것이 제가 오페라를 좋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4. 연습은 얼마나 이루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연습이 진행되었나요?

**구나운:** 이번 정기 오페라는 대사가 있는 징슈필이었기에 독일어로 말하며 연기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가 선생님은 물론 같은 배역의 캐스터들과 함께 많이 고민하고, 연습 시간 외에도 서로의 연기를 보고 조언 해주며 장면들을 보완했습니다. 여러 경험이 쌓일수록 더 수월해지겠지만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란 노래만큼 어려운 일 같습니다. 여전히 많이 미숙하지만 진정 자유롭게 무대를 즐길 수 있는 가수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 5. 연습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과정이 궁금합니다.

**류혜령:** 저는 아리아가 솔직히 너무 어려웠습니다. 일단 운동할 때만큼 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 처음 오디션을 위해 연습할 때, 만약 내가 오페라를 서게 된다면 이건 완곡 자체가 불가능할 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션에 합격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실력은 정말 크게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아리아 여러 곡을 쉬지 않고 부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습하니까 실제 오페라 무대에서는 생각보다 순탄하게 진행되었던 거 같아요.

## 연출 인터뷰

### 1. 소품 준비 과정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이다은:** 극에 어울릴만한 소품들의 참고 이미지를 여러 개 찾아서 가장 적합한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와 가장 유사한 소품을 소품실에서 구해왔습니다. 공연 때 사용할 소품을 구해오기 이전에는 최대한 무대 위에서 사용하게 될 소품과 유사한 소품을 학교 소품실에서 찾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작한 소품들도 있습니다. 페드릴로가 메고 등장하는 큰 나무 가방은 원래 그냥 원통의 바구니였는데 여기에 밧줄을 달아 엮어서 가방의 형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또한 남성 합창단이 쓰고 나온 모자들은 저희 학생 스텝들이 며칠간 수작업으로 완성한 소품입니다.

**윤리나:** 소품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떠한 소품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연출가님과 조연출님을 통해서 어떤 소품이 필요한지 대략 정리한 후, 우리가 원하는 느낌의 소품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물품이 시대와 색상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출가님께서 의도하시는 무대의 현장과 가장 적합한 소품을 여기저기서 찾아 봅니다. 그 후에는 오페라단에서 대여가 가능한 물품과 대여 불가능한 물품을 분류하여, 빌릴 수 있는 물품은 대여하고, 대여 불가능한 물품은 구매하거나 이미 있는 물품을 개조, 수리해서 원하는 느낌을 내기도 합니다.

### 2. 배역에게 맞는 의상 선정 과정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박준영:** 의상은 국립오페라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오페라 줄거리에 부합하는 중세 터키 오스만제국에 어울리는 옷을 선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배역과 맞는 의상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출가님의 의사입니다. 같은 배역의 의상을 생각해도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상 중에 연출가님의 선호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윤리나:** 구체적으로 의상을 선정하는 과정은 주역과 합창에 따라 달랐습니다. 주역의 경우, 맞춤 의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의상을 준비하기보다는, 준비된 의상을 제대로

받고 관리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반면, 합창 의상의 경우 60명 정도의 의상을 모두 제작할 수는 없기에 기존에 존재하는 의상을 빌려오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는 학교에 있는 의상을 살펴보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의상을 모색하고, 어떤 의상이 더 필요한지 수량과 의상 종류를 파악한 후, 오페라단에 연락하여 의상 소지 여부와 대여 가능성을 파악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페라단 창고에 가서 의상을 직접 보고 대여하기도 하고, 택배로 빌린 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모자라는 의상은 합창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발과 옷을 통해 충원했습니다.

### 3. 의상과 소품을 준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 있었나요?

**이다은:** 이번 작품이 다른 오페라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터키 시대의 극이었던지라 의상이 전반적으로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합창단의 의상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 다. 특히 합창단의 의상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 다. 특히 합창단의 의상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 다. 특히 합창단의 의상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 다.

**윤리나:** 의상 및 소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물건을 찾아내는 것이 었던 것 같습니다. 연출가님의 머릿속에 있는 물건의 스타일과 색상, 느낌에 맞는 상품을 찾아내기 위해 정말 많은 물품을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연출가님의 상상을 구현해드려야 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물품이 없다면, 우리가 기존의 물품을 색다르게 변형하여 새로운 물품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물품을 어떻게 변형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 또한 저희가 스텝이 아니라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 4. 막별로 바뀌는 무대 전환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나요?

**박준영:** 이번 오페라는 무대 전환이 총 4번 진행되었는데, 특히 1막에서는 극 중 전환 장면이 두 번 포함되어 극 진행에 방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무대 전환수들과 여러 차례 동선을 숙지하며 연습하였고, 그 결과 세 차례의 실전 무대에서 차질 없이 막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다은 :** 오페라 1막에 성벽이 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합창단원들이 직접 움직이는 수동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때가 마침 합창들이 등장하는 장면이라 전환수를 맡아준 합창단원들이 빠르게 전환을 시키고 가장 마지막에 합창대열에 합류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환시간을 줄이고 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허설 시간에 그 부분만 따로 연습할 만큼 많은 공을 들인 작업이었습니다.

**윤리나 :** 이번 오페라에서 무대 전환과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무대 위의 장치를 옮겨서 배치를 바꾸었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무대 장치는 사람이 옮기는 것이 아니고, 무대 감독님의 손만을 통해 무대가 드라마틱하게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페라의 경험을 통해 우리 손으로 직접 무대 전환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스태프 분들이 수고로 무대를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5. 오페라 공연 도중 돌발상황이 있었나요?

###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이다은 :**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스태프들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은 포도입니다. 2막 1장에서 오스민이 블론데에게 포도를 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대에 떨어진 포도들이 굴러서 피트에 떨어지기도 하고, 배역들이 움직이다가 실수로 밟아서 터지기도 하고, 인터미션 때 던진 개수만큼 수거해야 하는데 던진 것보다 적게 수거되어서 떨어진 포도를 찾느라 인터미션 동안 진땀을 빼는 등 포도와 관련된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대 감독님께서 항상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데, 포도를 던질 때마다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수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그래도 비교적 편하게 수거할 수 있었고, 포도가 터졌을 때는 인터미션이 시작되자마자 물티슈와 휴지 등을 챙겨 무대로 올라간 뒤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스태프들이 정말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이라 그런지 다행히도 포도와 관련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 6. 스태프로 무대를 같이 꾸려나가며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박준영 :** 이번 오페라에서 스태프로 참여하면서 평소 무대 위에 올라 노래만 부를 때에는 알지 못했던 무대 뒤 여러 사람의 노고와 열정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무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다은 :** ‘협동’이요. 무대는 절대 혼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공간입니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 사실이 더욱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불완전했던 많은 것들이 형태와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완전함에 이르렀을 때 공연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이번 공연이 성공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글\_ 신하늘, 홍다빈 (성악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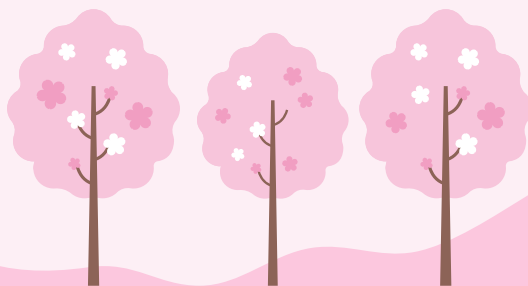




## 어우러지는 소리

### 화요음악회 리뷰

한 달에 한 번, 서울대학교에서 만나보는  
형형색색 음악들의 향연



# 1학기 화요음악회 리뷰

## 〈바흐와 춤을〉



3월 21일 19:0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

첼리스트 김두민은 서울시향, 경기필하모닉,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무대에 올랐으며, 평창 대관령 음악제에 정기적으로 초청받아 연주하고 있다. 2018년에는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니스트 김태형과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을 평단과 청중의 호평 속에 선보인 바 있다. 헝가리 필하모닉, 타피올라 체임버 오케스트라, 뒤셀도르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는 앙드레 프레빈의 지휘로 노르웨이와 독일에서 협연하기도 했다. 아스펜 협주곡 콩쿠르에서 우승, 파울로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 베르비에 음악 페스티벌에서 APCAV상을, 유럽문화재단에서 차세대 예술가상을 수상하였다. 예원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후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디플롬 과정을, 쾰른 국립음대에서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다. 김두민은 안네 소피 무터 재단에서 후원한 장 밥티스트 뷔욜 첼로로 연주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독일 뒤셀도르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을 역임했으며 2022년부터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No. 1 in G Major, BWV. 1007〉은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유명한 곡이다. 멜로디에서 첼로의 따뜻하고 무게감 있는 음색과 풍성한 울림이 잘 드러난다. 두 번째 곡인 〈No. 2 in G Major, BWV. 1008〉에서는 서정적인 분위기가 눈에 띄는데, 알라망드를 지나 빠른 속도감의 쿠랑트까지 이어진 후 사라방드에 이르러서는 긴장감이 완화되며 느긋한 선율이 연주된다. 어두우면서도 희망을 담은 그의 작곡법이 잘 드러난다. 마지막 곡 〈No. 3 in G Major, BWV. 1009〉에서는 역동적인 첼로의 연주가 돋보인다. 아주 빠른 악장인 부레는 강한 악센트로 리듬감을 살려 춤곡의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한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프렐류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춤곡 이름의 악장으로, 제목에 나타나듯 춤곡의 성격이 곡에서도 나타난다. 오로지 순수한 첼로의 선율만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연주였다.

## 〈Aviram Reichert Plays Gershwin〉

2023  
Tuesday  
Concert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화요음악회



Aviram Reichert  
Plays Gershwin

Piano 아비람 라이케르트

2023 / 04 / 25 / 7:00 PM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

- 후원: 후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 지원: 서울대학교 학생처
- 문의: 음악대학 기획연구센터 02)880-7914 musicnu7914@naver.com

SNU MUSIC

4월 25일 19:0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

깊고 지적인 해석, 놀라운 테크닉과 찬란한 음색으로 각광 받는 피아니스트 아비람 라이케르트는 프랑스 에피날 콩쿠르 1위, 한국 제1회 동아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미 독일과 일본에서 여러 주요 콩쿠르를 석권한 뒤 1997년 제10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동메달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바 있다. 이스라엘 필하모니, 도쿄 메트로 폴리탄 심포니, 차이콥스키 현악 사중주단 등 굴지의 실내악단과 함께 연주하였고, 라비니아 페스티벌, 클라비어 페스티벌 루르, 도쿄 뮤직 페스티벌 등 전 세계를 거쳐 성공적인 콘서트 커리어를 구축하였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는 이를 높이 사 최초의 정식 외국인 교수로 발탁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날 연주에서 아비람 라이케르트 교수는 미국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서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에 기여한 조지 거슈윈(George Gershwin)의 대표작품 〈랩소디 인 블루〉, 〈피아노 협주곡 바장조〉, 〈프렐류드 2번〉을 연주하였다. 〈랩소디 인 블루〉는 20세기 초 미국의 음악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며 프렐류드와 재즈가 만나 클래식이면서도 대중적인 음향이 만들어진다. 〈피아노 협주곡 바장조〉는 거슈윈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 곡을 통해 재즈를 세상에 알렸다. 본래 재즈 밴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이었으나 이번 연주에서는 피아노,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이 함께하여 아비람만의 연출로 곡을 완성했다. 마지막 곡인 〈프렐류드 2번〉은 피아노 협주곡에 재즈를 도입한 작품으로 이 작품 또한 재즈의 색감을 담았지만 고전 음악의 형식을 지키고 있다. 이번 연주를 통해 아비람은 거슈윈의 재즈와 클래식이 결합한 새로운 방향의 연주를 관객들에게 들려주었다.

## 〈서울 비르투오지의 사계〉

2023

Tuesday  
Concert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화요음악회

서울비르투오지의  
**사계**

Violin 이경선

2023 / 05 / 16 / 7:00 PM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

주최: 주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 지원 서울대학교 학생처  
문의: 음악대학 기획연구센터 02)880-7914 music@snu7914@naver.com

SNU MUSIC

5월 16일 19:0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

난파음악상 수상과 함께 뛰어난 연주자이자 훌륭한 교육자로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은 1991년 한국인 최초로 워싱턴 국제콩쿠르 1위 입상을 비롯하여 몬트리올 국제콩쿠르, 레오폴드 모차르트 국제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등에서 연속으로 입상하여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싱가포르 국제콩쿠르, 영-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등의 심사위원을 맡기도 한 그녀는 2024년 퀸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001년부터 미국 오벌린 음악대학, 2006년부터 휴스턴 음악대학,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임용되었고, 미국의 콜번, 비엔나 음악대학, 동경음대 등에서 저명 교수로 초청되어 강의와 연주를 해오고 있다.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작곡가 비발디가 작곡한 〈사계〉는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모든 곡의 모든 악장에 소네트(짧은 시)를 붙여 비발디가 각 악장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내었으며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로 각 계절의 싱그러움, 나른함, 고독함과 더불어 비발디만의 계절을 들려주었다. ‘탱고의 전설’, ‘탱고의 황제’라고 불리는 아스토르 피아졸라는 탱고를 춤을 반주하는 음악에서 감상하는 음악으로 바꾸어 놓은 인물이다. 그가 작곡한 수많은 탱고 작품은 이전의 탱고들과는 차원이 다른 섬세함과 세련됨으로 주목받는다. 피아졸라의 〈사계〉는 계절의 순서와 상관없이 작곡한 후 엮은 작품이며 그의 곡에는 탱고의 관능적이고 원초적인 감각들이 담겨있다. 이날 연주는 서울 비르투오지 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 풍성하고 생동감 넘치는 연주를 들려주었으며 또한 같은 주제의 ‘사계’를 연주함으로써 사계를 대하는 작곡가들의 개성을 느낄 수 있었다.



## 〈The Romantic Horn〉

2023  
Tuesday  
Concert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화요음악회

*The Romantic Horn*

Horn 김홍박

2023 / 06 / 13 / 7:00 PM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

• 주최: 주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 지원: 서울대학교 학생처  
• 문의: 음악대학 기획연구센터 02)880-7914 music@snmu7914@naver.com

SNU MUSIC

6월 13일 19:0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

호른니스트 김홍박은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에서 라도 반블라트코비치를 사사하여 석사를 마친 후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크리스티안-프리드리히 달만을 사사하며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동아 음악콩쿠르를 비롯해 유수의 국내 콩쿠르를 석권한 그는, 국제호른협회에서 주최하는 필립 파카스 어워드에서 2위, 2012년 도쿄에서 열린 일본 관악 타악 콩쿠르에서 호른 부문 1등과 전 부문 대상을 받았다. 금호아트홀 체임버 뮤직소사이어티 멤버를 역임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정명훈 음악감독이 이끄는 서울시향에서 호른 부수석을 역임하였으며 런던심포니, 로열스톡홀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서 객원 수석으로 초청받아 연주하였다. 2015년 월간 〈객석〉이 선정한 “2015 차세대 젊은 예술가 12인”, 〈포브스 코리아〉가 선정한 “2030 파워리더 30인”에 선정되었으며 제3회 예술의전당 예술 대상에서 음악 부문 신인 예술가상을, 2022년 제32회 윤파음악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한양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고잉홈 프로젝트 이사, 앙상블 오푸스, 클럽 M, Korean Horn Sound 단원으로 활동 중이며, 2023년부터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늘 연주된 스크랴빈의 〈Romance for Horn and Piano, WoO. 21〉은 호른만의 단단하고 따뜻한 음색과 피아노의 감미롭고 우아한 반주가 어우러져 로맨틱한 느낌을 준다. 뒤이어 연주된 곡의 제목이자 16세기 이탈리아의 경쾌한 성악 장르, 혹은 전원시를 의미하는 〈Villanelle〉에서는 첫 번째 곡과는 사뭇 다른 맑은 호른의 선율을 들려준다. 제목의 영향을 받은 듯 잔잔하면서도 경쾌한 느낌을 호른으로 표현했다. 세 번째 곡인 〈Adagio and Allegro, Op. 70〉은 호른의 화려한 기교를 엿볼 수 있다. 곡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여 끝까지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었다. 마지막 곡인 〈Trio for Piano, Oboe, and Horn, Op. 188〉에서는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피아노, 오보에 그리고 호른이 트리오로 연주한다. 서로 다른 악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대화에 청중의 귀를 참여시키며, 훌륭한 연주 실력을 통해 따뜻하고 로맨틱한 호른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전달해주었다.

## 2학기 화요음악회 리뷰

### 〈Dispersion Fluide〉



9월 26일 19:3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

트럼펫 연주자 성재창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하고 동아 음악콩쿠르 1위, 제주 국제 관악콩쿠르와 일본 관악기 타악기 콩쿠르 입상 등 국내외 콩쿠르에서 뛰어난 실력을 입증하였다. KBS교향악단, 인천 시립 교향악단, 수원 시립 교향악단, 서울 바로크 합주단 등 여러 단체와 협연을 하였고, 서울 예술의전당, 독일 스테파누스 성당, 핀란드 리엑자 홀 등에서 다수의 독주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고음악 단체인 카메라타 안티와 서울과 현대음악 단체인 팀프 앙상블에서 연주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금일 연주회는 “Dispersion Fluide”라는 제목으로 총 6곡의 현대 작품들이 연주되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현대의 복잡하고 난해한 음악들이었지만, 성재창의 음악을 통해 재미있고 생생한 무대로 꾸며졌다. 특별히 마지막 곡인 “Dispersion Fluide”는 오늘 화요음악회를 통해 초연된, 연주자 성재창에게 헌정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마무리였다고 할 수 있으며, 작곡가 임종우와 함께 연주하여 신비로운 전자음악의 세계와 환상적인 무대 연출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관악 콰르텟과 함께 무대를 꾸며 여러 대의 관악기가 만들어내는 다채롭고 풍성한 음악의 매력에 빠져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가을의 낭만 : 리수스 콰르텟〉

2023

Tuesday  
Concert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화요음악회



가을의 낭만 *with* 리수스 콰르텟

2023. 10. 24 7:30 PM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 ◆

· 주최 · 주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 지원 서울대학교 학생처  
· 문의 음악대학 기획연구센터 02)880-7914 music@snmu7914@naver.com

SNU MUSIC

10월 24일 19:3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

리수스 콰르텟은 2020년 5월 창단된 그룹으로, 제1 바이올린 이해니, 제2 바이올린 유지은, 비올라 장은경, 첼로 마유경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2021년 미국에서 열린 피쉬오프 챔버콩쿠르에 총 250 여팀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인 최초로 시니어 스트링 부분 우승과 함께 전 부문 대상을 받고 현재는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음악 연주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첫 번째 곡인 〈LIFT for String Quartet〉은 총 3악장으로 구성되는데, 글리산도와 피치카토의 사용, 역동적으로 첼로의 몸통을 두드리는 소리 등은 관객들을 연주의 몰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두 번째 곡 〈String Quartet No. 14 in D minor, D.810 'Death and the Maiden'〉은 슈베르트가 생전에 남긴 3곡의 현악 4중주에서 가장 유명한 곡으로 꼽히는 작품으로,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죽음과 소녀〉라 일컫는다. 이는 1817년 슈베르트가 작곡한 성악곡 〈죽음과 소녀〉와 같은 제목인데, 그 이유는 해당 성악곡의 주제 선율이 현악 4중주의 2악장에서도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죽음과 소녀〉는 독일 시인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의 시를 가사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소녀와 그런 소녀를 달래는 죽음 사이의 대화를 담아내었으며, 현악 4중주 역시도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을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음향적 효과가 극대화된 다이내믹한 〈LIFT for String Quartet〉과 부드럽고 조금은 우울한 〈String Quartet No. 14 in D minor, D.810 'Death and the Maiden'〉을 통해 가을의 낭만을 함께 즐겨보길 바란다.

## 〈가야금 앙상블 사계 콘서트 : Four Worlds〉

2023  
Tuesday  
Concert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화요음악회

가야금앙상블 사계 콘서트

# Four Worlds

2023. 11. 28 7:30 PM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 ◆

· 주최 · 주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 지원 서울대학교 학생처  
· 문의 음악대학 기획연구센터 02)880-7914 music@snu7914@naver.com

11월 28일 19:3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

가야금 앙상블 사계(四界)는 1999년에 창단된 여성 가야금 연주자 네 명으로 이루어진 실내악단이다.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음악으로 국내 및 해외(미국, 유럽, 카자흐스탄, 일본 등) 공연을 진행해왔고, 방송, 영화음악, 패션쇼, 비엔날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음악 활동을 전개해왔다. 여기서 四界'(four worlds)란 서로 다른 네 사람의 세계가 함께함으로써 조화로운 또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들만의 앙상블 정신은 공자의 “君子 和而不同, 小人 同而不和.”, 즉 ‘군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반드시 같기를 요구하지 않고, 소인은 같기만을 요구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어울리지 못한다(《논어 자로(子路) 편》).’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사계〉는 총 7곡의 작품을 연주하였다. “새타령”은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인 새타령을 가야금 사중주로 편곡한 곡으로, 익숙한 멜로디를 색다르게 들어볼 수 있었다. 두 번째 곡 “도시의 밤 - 끊임없는 자장가”는 ‘밤’이라는 시간적 소재에서 연상되는 이미지와 다른 현실의 모습에 영감을 받아 작곡된 작품이다. 작곡가 강대명은 예술가들의 상상을 촉발하는 ‘밤’과 달리 오늘날의 도시는 밤에도 쉬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자장가’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바쁜 현실에 위로가 필요하다면 들어보기를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슬픔의 날개”는 탈북자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소재로 삼고 있다.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작곡가의 마음이 작품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나 가야금의 한이 담긴 음색을 통해 연주되어 그들의 목소리가 와닿게 느껴졌다.



## 〈정지혜와 밴더빌트 타악기 그룹〉

2023

Tuesday  
Concert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화요음악회



**Ji Hye Jung** — and  
Vanderbilt Percussion Group

Percussion 정지혜와 밴더빌트 타악기 그룹

**2023. 12. 12 7:30 PM**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 ◆

• 주최·주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 지원 서울대학교 학생처

• 문의 음악대학 기획연구센터 02)880-7914 musicnu7914@naver.com

**SNU MUSIC**

12월 12일 19:3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

타악기 연주자 정지혜는 청주 우리 예능원, 예원학교, 서울 예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1학년 재학 중 도미하여 피바디 대학 학사 졸업하였으며, 예일 음악대학원 최고 장학생으로 Robert Van Sice를 사사하였다. 음악 저널, 부산 콩쿠르, 서울대 콩쿠르, 2006년 린즈 마림바 콩쿠르 1등, 2007년 Yale Gordon Concerto Competition 1등의 수상 경력이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실내악 그룹 Camerata Pacifica 정식단원이자 Vanderbilt University, Blair School of Music 타악기 교수 겸 타악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고, 유라시안 필하모닉, 수원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와 함께

지휘자 금난새, 임원식, 정치용 등과 협연하며 총 100회 이상의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Vanderbilt Percussion Group은 Blair School of Music의 타악기 실내악 앙상블로서 주로 Blair 음대 타악기 전공생이 모여 전통적 및 비전통적 현대 클래식 작품을 연주한다. 이날 정지혜와 밴더빌트 타악기 그룹은 총 5곡을 연주하였는데, 첫 번째 곡 〈Variations on Japanese Children Songs〉는 장중하고 강렬한 색채가 인상적인 작품으로, 작곡가 케이코 아베는 이 작품의 일부를 무덤에서 연주하기 위해 작곡했다고 한다. 약 7분 분량의 작품 속에서 16분음표로 빠르게 전개되는 마림바의 입체적인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두 번째 곡 〈Shell〉은 사진작가 세프 로리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되었는데, 그 내용은 미국 전역의 버려진 쇼핑물의 이미지를 담아낸 것이다. 특히나 곡의 중간에 채로 마림바를 두드리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이는 마치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공허함을 표현한 듯하다. 세 번째 곡 〈Mudra〉는 솔리스트와 네 명의 타악기 연주자로 구성되며 다양한 타악기 음색들의 조화와 연주자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으며, 네 번째 곡 〈Stardust〉는 2대의 비브라폰과 2대의 멀티 퍼커션 연주자를 위한 4중주 구성의 작품으로, 다양한 현대 작곡가와 음악 장르에서 영향을 받은 Clark Hubbard의 혼합적 작곡 양식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마지막 곡 〈White Pines〉는 총 3악장으로 구성된 〈Home Trilogy〉의 두 번째 악장으로, 겨울철 Michael Burritt의 집 근처 풍경에 영감을 받아 작곡되었다. 눈 덮인 나무의 에너지, 청량함, 웅장함을 담아낸 〈White Pines〉를 통해 깊어져 가는 겨울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었다.

화요음악회는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관악구 주민들에게 무료로 질 좋은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달마다 1회, 총 1년에 8번 열리는 음악회이니 참석하여 다양한 음악을 경험하고 연주자들에게 큰 환호와 박수를 보내주길 바란다. 또한 실시간 공연 외에도 화요음악회 연주 영상이 녹화되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니, 놓친 연주를 찾아 보거나 다시 한번 감동을 경험하고 싶다면 검색해보길 추천한다.

글\_차원서 (성악과 22)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VOL.30

---

**발행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최은식

**기획연구센터 기획**

기획연구센터장 성재창

기획연구센터 김윤희

**기획연구센터**

권상국 성악과

신하늘 성악과

양희운 국악과

이고은 성악과

차원서 국악과

홍다빈 성악과

**교정**

김소혜 음악학과

**출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디자인·인쇄**

(주)꿈인디자인&출판

---



**SNU MUSIC**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절취선

※발전기금 약정과 동시에 서울대학교발전후원회의 회원이 됩니다.

☐ 기부 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음

## 2. 약정정보

### 3. 납부방법 (택 1)

#### 4.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고지사항 고시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약정인 (서명)



※ ARS 후원전화 060-700-8004 한 통화로 학교발전기금 5,000원이 적립됩니다. ※ 유증 및 무증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